

사회

광주·전남 북한이탈주민 채용 박람회 가보니...

“난생 처음 이력서·면접 설렘어요”

18개 기업에 100여명 몰려 취업 부른 꿈

“면접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지난 31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광주 지역 최초로 열린 '2012 광주·전남 북한이탈주민 채용박람회'.

이들은 광주·전남 각 지역 하나 센터의 도움을 받아 이른 아침부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주최한 박람회장을 찾았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을 찾는 지 얼마 되지 않아 '채용박람회' 행사 자체가 생소하기만 했다.

어떤 이는 기필코 취업을 하겠다는 욕심에 2~4개의 이력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지난해 탈북해 한국생활에 6개월째 접어든 함경북도 무산군 출신의 오영성(39·가명)·박영순(여·가명)

씨 부부도 이날 두 손을 꼭 잡고 행사장을 찾았다. 오씨는 북한에서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전역 후 중이공장에서 일했다.

오씨는 “어리둥절하기만 하네요. 고향에서 일자리 정보를 얻기 위해 오던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두 45명이 현장에서 면접을 봤고, 나머지 구직자들은 이력서를 제출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취업지원센터는 “이번 행사가 끝이 아니라 오늘 접수한 서류들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장을 찾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난 31일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2012 북한이탈주민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담당자와 면담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자영업자 등친 '살인고리'

광주경찰,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구속

해남경찰도 5명 적발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31일 영세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고리를 뜯어낸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이모(29)씨에 대해 대부업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이모(28)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광주시 서구 내방동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전단지 등을 광주 지역에 온 영세 자영업자 등 215명에게 18억2500만원을 빌려주고 연 178~717%에 이르는 고리를 뜯어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구지역 고향 선후배 사이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기업형 불법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합숙하면서 골목시장이나

상가 밀집 지역 등지에 '맞춤대출', '행복대출', '편리한 아줌마 일수' 등 30여 종에 이르는 명함형 및 메모지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3월24일 이전 단지를 보고 찾았으나 미응답 업체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8만원을 제외하고 매일 2만원씩 60일 동안 120만원을 일수 방식으로 수금, 연 334%의 고리를 쳤다고 설명했다.

해남경찰도 살인적인 이자를 받은 무등록 대부업체 5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개인회생자금 등 급전이 필요한 최모(58)씨 등 298명에게 421회에 걸쳐 12억원의 대출하고 연 436%의 고금리로 갚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영화 '건축학 개론'

영상파일 유출자 입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영화 '건축학개론'의 영상 파일을 유출해 유료로 제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문화복지사업 업체인 P사 팀장 윤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영상파일을 받아 영화를 보고는 이를 지인에게 메신저로 전달해 유료로 시청된 혐의로 A씨(여·34) 등 1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군 시설이나 해외 문화원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상영 등의 복지사업을 하는 P사에서 일하는 윤씨는 영화 제작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건축학 개론' 영상물을 갖고 있던 중 영화 개봉일(3월20일) 이후인 4월5일에 컴퓨터로 영화파일을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이메일로 보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동구 불법선거 검사-변호인 날선 신경전

증인들, 유태명·박주선과 관련성 부인 재판부 위증죄 강조속 1심 선고 결과 주목

“검찰에서 조서를 읽은 뒤 서명 날인했지만 그 당시엔 정신이 없어서...”, “안경을 안 쓰고 봐 제대로 조서를 보지 못해서...”

전직 동장 부친자살사건으로 불거진 광주시 동구 불법선거 사건과 관련 지난 31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린 심리에서 핵심관계자 및 증인들이 검찰에서의 관련 진술을 반복하면서 이날도 예정된 1심 선고 결과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진술과는 달리 유태명 동구

청장, 무소속 박주선 동구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지시나 부탁 등이 없었다는 것이 주된 법정 증언이었다. 이미 유 구청장과 박 의원 등이 공소사실을 전변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 증인들의 진술 반복은 검찰의 공소사실 유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돼 향후 뜨거운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출석한 증인은 배모씨 등 동구여성사법회 각 동 회장 3명으로, 이들은 한결같이 지난 1월16일 구

청장실에서 상품권을 전달받은 당시 유 구청장의 선거 관련 발언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간의 사정을 의식한 듯 이날 검사와 피고 측 변호인은 날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유 구청장 측 변호인이 한 증인에게 “검사의 암시성 질문에 답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검찰 측이 즉각 “질문이 부적절하다”며 반박했다.

또 검찰 측이 이날 법정에서 증인들의 진술 반복과 관련된 녹취물을 공개하려다가 변호인 측의 반발로 유예에 들어간 뒤 재판부인 형사 6부(부장판사 문유석)의 의견 수렴 끝에 공개가 결정되기도 했다. 이 녹취물은 증인들이 법정

증언 전에 진술에 대해 협의한 일부 단서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증인들의 위증죄 처벌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재판부는 뚜렷한 사유 없이 증인들의 진술 반복이 잇따르자 증인 진술에 위증에 대한 처벌이 엄중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증인들에게 일일이 검찰 조사 당시 작성한 진술조서를 보여주며 진술과 다른 사실이 있는지와 서명 날인의 강제성 여부를 물었고, 변호인 측은 진술조서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해서 오전에 시작된 재판은 오후 7시까지 이어졌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진술만 의존해서 공소사실을 유지할 수는 없으며, 이미 재판과정에서 진술 반복은 예상했었다”며 “검찰의 공소유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중학생 자살 가해학생 항고 기각

광주지법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양형권)는 올해 초 광주 A중 학생의 자살사건과 관련해 상습폭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15)군의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 항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학생인 이군의 장래를 위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했다.

이에 앞서 이군 등은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따라 감호 위탁, 수감명령, 사회봉사명령, 단·장기 보호관찰, 단·장기 소년원 송치 등 10단계 내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시선 판사는 지난 4일 이군과 함께 기소된 중학생 3명에 대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학교 안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이 악역감식의 아노미적 관계를 형성한 데는 이들을 윤리적으로 지도할 의무가 있는 가해학생 부모와 교사, 또 피해상황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피해자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소년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고 범죄 연령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법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며 학교폭력 주동자인 이군에 대해 항고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경찰 차 털려다 딱 걸린 절도범

○“주차된 경찰관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주인공에게 딱 걸린 ‘운 사나운(?)’ 30대 절도범이 경찰서행.

○“지난 3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주모(31)씨는 이날 새벽 3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 길거리로 주차된 광주경찰청 기동대 소속 이모(32) 순경의 자동차 문을 따던 중 인근에서 이를 목격한 이 순경에 의해 붙잡힌 것.

○“경찰은 “주차가 주변 주차되었던 차량을 털려고 했다”며 “하필이면 경찰관의 차를 골랐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끝끝.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7개>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Lists 17 real estate auction items.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Lists 17 real estate auction items.

- 2. 매각기일 : 2012. 6. 18.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2. 6. 25. [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장
5. 매각방법

- 1. 입찰방법에 비추어 가압류금, 보증금, 담보금, 용역금, 수수료, 입찰금, 보증금, 등기비용 등 기타에 대한 납입에 보증금을 함께 입찰금에 내야 함
2. 입찰금에 대한 납입은 입찰 당일 오전 11시(토요일)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지기어수표 또는 현금 증빙하여야 함
3. 입찰금에 대한 납입은 입찰 당일 오전 11시(토요일)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지기어수표 또는 현금 증빙하여야 함
4. 입찰금에 대한 납입은 입찰 당일 오전 11시(토요일)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지기어수표 또는 현금 증빙하여야 함
5. 입찰금에 대한 납입은 입찰 당일 오전 11시(토요일)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지기어수표 또는 현금 증빙하여야 함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8. 주의사항

2012. 6. 1.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정권